스위스 최고의 단풍놀이.

화려한 단풍 펼쳐지는 가을 하이킹 코스

포도밭 노란빛부터 낙엽송 황금빛까지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다 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황홀한 풍경
가을 풍경 속을 달리는 파노라마 기차와 산악 기차도
스위스 낭만 단풍놀이

산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을에 놓치면 아쉬운 것이 바로 단풍놀이다. 산이 많고 산을 사랑하는 스위스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다. 호숫가 마을에는 포도밭 언덕이 샛노랗게 변하고, 숲은 노랑부터 빨강까지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는다. 단풍이 절정인 시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도에 따라 생각하면 쉽다. 산악 지역은 10 월 중순에, 호숫가 저지대는 10 월 말이 단풍 절정기다. 스위스 숲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대표적인 나무에는 낙엽송, 자작나무, 단풍나무, 너도밤나무가 있다. 이 나무들은 색이 변할 때 특히 아름답고 스위스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수종이다. 이들의 특징을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낙엽송**
  발레주, 티치노 주의 계곡 및 그라우뷘덴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낙엽송은 주로 해발 1,400m 이상의 가파른 경사면에서 자라며 울창한 산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햇빛이 필요하다.

- **자작나무**
  양지에서 잘 자라는 토착 수종 중 하나로 스위스 각 지역에서 분포한다. 알프스 남쪽에서 가장 흔하며 유라와 알프스 전지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알프스에서 자생한다. 자작나무는 경사진 비탈면과 산성토양에서 잘 자란다.

- **플라타너스 단풍나무**
  스위스에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유라(Jura), 스위스 동부 고원 및 알프스 전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촉촉하고 영양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종종 해발 1,700m 고도까지 번성한다.

- **너도밤나무**
  스위스 고원과 알프스 전지대에서 가장 흔한 수종이다. 촉촉한 토양과 해발 1,300m 이상의 고도에서 자라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고 대륙성 기후를 보이는 알파인 계곡에서는 너도밤나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너도밤나무로만 구성된 숲은 티치노의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다.

머리 위로 단풍나무들이 만들어 내는 마법 같은 색채가 펼쳐지고, 발아래로는 숲 향기 가득한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밟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단풍놀이 코스를 소개한다.

1.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취리히(Zurich)에서 가장 가까운 산
위틀리베르크(Üetliberg), 취리히
위틀리베르크 정상에 서면 낭만적인 구시가지와 반짝이는 호수, 그리고 알비스(Albis) 산맥과 알프스의 멋진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1 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가벼운 하이킹을 마치면 펠젠엑(Felsenegg)에

도착한다. 그런 다음 알비스파스회헤(Albispasshöhe) 방향으로 하이킹을 이어 가거나 버스를 타고 탈빌(Thalwil)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가을에 추천하는 하이킹 코스다.

찾아가는 방법:
취리히 기차역에서 위틀리베르크행 기차를 타면 산 정상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펠젠엑까지 하이킹을 한 뒤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아들리스빌(Adliswil)까지 내려간 뒤, 버스를 타고 탈빌 기차역으로 갈 수 있다.

2. 발레의 황금 포도밭
콘테이(Conthey), 발레(Valais)
가을, 콘테이 포도밭을 거니는 미식 하이킹은 아주 특별한 체험이다. 콘테이 와인은 꼭 맛봐야 할 와인이며 훈제 송어, 양 꼬치, 알파인 치즈 및 홈 베이킹과 같은 현지 식재료와 특히 잘 어울린다. 이런 음식들은 다양한 종류의 와인, 기후, 식물 그리고 황금빛 포도밭과 연결된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제공된다.

찾아가는 방법:
기차로 시옹(Sion)까지 간 뒤, 버스를 타면 콘테이 마을을 찾아갈 수 있다. '콘테이-플란(Conthey, bif. Conthey-Plan)'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3. 슈라텐플루(Schrattenfluh)를 물들이는 가을
쇠렌베르크(Sörenberg), 루체른(Luzern) 호수 지역
마바흐(Marbach) 마을의 마바흐엑(Marbachegg) 테라스에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가을 하이킹 코스다. 걷는 동안 가까이 있는 슈라텐플루(Schrattenfluh)의 멋진 파노라마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알프 임브리크(Alp Imbrig)의 스위스 산장에는 멋진 바비큐 장소와 파노라마 전망이 있다.

찾아가는 방법:
루체른에서 기차로 40 분 정도 걸리는 에숄츠마트(Escholzmatt) 역에 내린 뒤, 버스를 타고 '마바흐 도르프(Marbach LU, Dorf)'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마을 중심부를 등지고 버스 길인 도르프슈트라쎄(Dorfstrasse)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케이블카 역이 나온다. 여기에서 마바흐엑으로 향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뒤, 1 시간 30 분 정도 걸으면 알프 임브리크에 도착하게 된다.
돌아올 때는 마바흐 마을까지 이어지는 하이킹로를 따라 2 시간 정도 걸어 내려오거나, 왔던 방법 그대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

4. 알레취(Aletsch) 숲
리더알프(Riederalp), 발레(Valais)
베트머호른(Bettmerhorn)에서 능선 길(Gratweg)을 따라 글레쳐반 모스플루(Gletscherbahn Moosfluh) 상부 역으로 향한다. 이곳에서 장대한 알레취 빙하의 풍광과 발레 주의 탁 트인 전망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서 호흐플루(Hohfluh)를 넘어 리더푸어카(Riederfurka)까지 하이킹을 진행한 후 알레취발트(Aletschwald) 숲으로 내려갈 수 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중 하나로 꼽히며, 600 년이 훨씬 넘은 황금빛 스위스 눈잣나무와 낙엽송이 곳곳에 있다.

찾아가는 방법:

기차로 브리그(Brig)까지 간 뒤, 기차를 갈아타고 베텐(Betten Talstation) 역에서 내리면 베트머알프(Bettmeralp) 마을까지 가는 케이블카가 있다. 베트머알프 마을에서 베트머호른행 케이블카를 타면 빙하 전망대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모스플루와 호흐플루, 리더푸어카를 거쳐 리더알프까지 하이킹을 하는데, 3-4 시간 정도 소요된다. 리더알프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뫼렐(Mörel) 기차역으로 내려갈 수 있다.

5. 라보(Lavaux)의 황금 포도밭
생사포렝(St. Saphorin), 보(Vaud)
이 멋진 하이킹 코스는 2007 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라보의 계단식 포도밭을 속속들이 거닐어 볼 수 있다. 생사포렝에서 루트뤼(Lutry)로 향하는 길은 레만 호수와 주변 산의 숨 막히는 풍광으로 더 매력적이다.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 바로 가을 녘, 황금빛으로 물드는 포도밭이다.

찾아가는 방법:
몽트뢰(Montreux) 역에서 기차를 타면 13 분 만에 생사포렝에 도착한다. 좀 더 특별한 여정을 원한다면 몽트뢰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리바-생사포랭(Rivaz-St-Saphorin)까지 갈 수도 있다. 약 1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여정이다. 포도밭길을 따라 자유롭게 걷다 보면 리바(Rivaz), 에뻬스(Epesses), 리엑스(Riex) 같은 와인 마을을 거쳐 뤼트리에 닿는다. 총 11km 되는 거리고, 2 시간 30 분에서 3 시간 정도 소요된다. 뤼트리에서는 1 시간 20 분 정도 걸리는 유람선을 타고 몽트뢰로 돌아오는 방법을 선택해도 좋고, 25 분 정도 걸리는 기차를 타고 몽트뢰로 돌아와도 좋다.

6. 엥가딘(Engadin) 지역의 황금 낙엽송
실스(Sils), 그라우뷘덴(Graubünden)
비아 엥가디나(Via Engiadina) 트레일을 따라 걷다 보면 말로야(Maloja)와 사메단(Samedan) 사이의 햇살 가득한 골짜기가 만들어내는 화려한 대조를 만날 수 있다. 낙엽송은 하이킹 내내 아름다운 금빛 경관을 만들어낸다. 말로야에서 그레바살바스(Grevasalvas)를 거쳐 생모리츠(St. Moritz)까지, 알프 문타취(Alp Muntatsch)를 통해 사메단까지 이동한다.

찾아가는 방법:
생모리츠(St. Moritz)까지 기차로 이동한 뒤, 버스를 타면 말로야 마을까지 갈 수 있다. 생모리츠를 찾을 때는 빙하특급이나 베르니나 특급을 타도 좋다. 말로야-그레바살바스-생모리츠-알프 문타취-사메단 코스를 전부 걸으려면 12 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원하는 구간을 일부 체험해 보거나, 며칠을 머무르며 걸어보는 것이 좋다. 사메단에서는 버스로 생모리츠까지 연결된다.

7. 베른(Bern)의 다채로운 단풍
뷔첼엑(Bütschelegg), 베른 지역
뷔첼, 그쉬나이트(Bütschel, Gschneit) 근처의 레스토랑 슈터넨(Sternen)에서 시작한다. 먼저 타벨(Tavel) 기념관까지 걸은 후 벤치에 앉아 툰(Thun) 호수와 니센(Niesen) 그리고 슈톡호른(Stockhorn)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이어서 뷔첼엑으로 향하는 이정표를 따라 뷔첼엑 정상에 도착하면 멋진 풍광과 함께 가을 단풍을 만날 수 있다.

찾아가는 방법:
베른에서 기차를 타고 쾨니츠(Köniz)까지 간 뒤, 버스를 타고 '뷔첼, 그쉬나이트(Bütschel, Gschneit)'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타벨 기념관(Von Tavel Denkmal)까지 간 뒤, 뒤로 돌아 뷔첼엑(Bütschelegg)까지

걷는데, 약 1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뷔첼엑 레스토랑에서 허기를 달랜 뒤, 다시 걸어서 오버뷔첼(Oberbütschel) 마을의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온다. 약 20 분 정도가 걸린다. 오버뷔첼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쾨니츠까지 간 뒤, 기차를 타고 베른으로 돌아갈 수 있다.

8. 아레넨베르크 샤토(Arenenberg Chateau)에서 바라보는 매혹적인 전망
잘렌스타인(Salenstein), 샤프하우저란트(Schaffhauserland)
투어가우(Thurgau)에 있는 200km 짜리 순환 하이킹은 아름다운 명소와 25 개의 작은 호수 그리고 많은 성과 궁전을 지나간다. 트레일은 에르마팅엔(Ermatingen)에서 아레넨베르크까지 이어지는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기 좋은 코스이다. 아레넨베르크의 정원을 거닐며 만나게 되는 금빛 햇살에 반짝이는 단풍나무가 특히 아름답다.

찾아가는 방법:
취리히에서 기차를 타고 크로이츠링엔(Kreuzlingen)에서 환승한 뒤, 에르마팅엔 역에서 내린다. 에르마팅엔에서 아레넨베르크까지 걷는데 약 30 분 정도 소요된다. 에르마팅엔에서 호숫가 쪽으로 간 뒤, 베슈터펠트슈트라쎄(Westerfeldstrasse)를 따라가면 된다.

9.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Luzern-Interlaken Express)
루체른(Luzern)-인터라켄(Interlaken)
중앙 스위스에서 기차에 올라 편안한 좌석에 몸을 묻고, 거의 두 시간 동안 가을 숲의 기막힌 뷰를 한껏 마음에 담아볼 수 있다. 그리고 나면 융프라우 지역(Junfrau Region)에 도착한다. 이게 바로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다. 이 구간에서는 프리미엄 파노라마 차량이 수정처럼 맑은 다섯 개의 산정 호수와 여러 개의 폭포 및 강을 지난다. 기스빌(Giswil)이 지나면 바로 기차가 톱니바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고도를 높여 브뤼니크 고개(Brünig Pass)를 올랐다가 인터라켄을 향해 다시 내려온다. 가을 최고의 포토 포인트는 자르넨(Sarnen)–기스빌(Giswil) / 룽게른(Lungern) / 브뤼니크 고개(Brünig Pass)에서 마이링엔(Meiringen)까지의 구간이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0. 고르너그라트 반(Gornergrat Bahn)
체르마트(Zermatt)–고르너그라트(Gornergrat)
유럽에서 가장 높은 지상 톱니바퀴 열차가 체르마트 기차역에서 고르너그라트 봉우리 정상까지 연중 운행된다. 기차는 1,469m 를 오르는데, 인상적인 다리를 건너고, 갱도와 터널을 통과하고, 잣 소나무와 황금빛 낙엽송으로 물든 숲을 관통하고, 바위 가득한 협곡과 반짝이는 산장 호수를 지난다. 33 분 만에, 마터호른이 시야에 들어오는데, 크리스털처럼 맑은 가을 공기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난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기차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